

군산,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시범 운영
거동 불편 수혜자 고충 해소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수혜자 중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시범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꾸러미세트(A, B형)를 구성해 대상자에게 배송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군산시는 올 4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보충 지원을 위해 월 4만원(1인가구 기준), 월 5만7000원(2인가구 기준)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수혜자 중 거동이 불편해 관내 로컬푸드

드 직매장 등 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꾸러미 배송 시범운영을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

꾸러미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기류(삼겹살, 한우 국거리) 및 쌈채류(상추, 깻잎 등)로 구성되었으며, 가구원 수 및 지원금액에 따라 각 품목의 용량에 차등을 두어 꾸러미를 배송할 예정이다.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희망자는 8월분 충전금액 전액 사용 후 8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꾸러미 배송 신청 후 사용하던 바우처 카드를 반납하면 된다. 군산시는 8월 중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대행기관은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배송하는 것으로 지난 7월 농식품바우처 지역협의회를 통해 결정됐으며, 9월 첫째주에 확정 대상자에게 일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괄 배송된다.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은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시범운영을 통해 농식품바우처 사용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바우처 카드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수혜자까지 고려해 사업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송기문기자jskkm@naver.com

군산시,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호응

세트 A·B형 분류해 직접 전달
취약계층에 우수한 농식품 제공

군산시가 '농식품바우처 사업' 수혜자 가운데 거동 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을 시범 운영한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민들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보충 지원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이다.

이들에게 국내산 과일·채소·흰우유·신선계란·육류·잡곡·꿀·두부류·산양유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

를 제공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총 1만5천867가구가 대상으로,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 2인 가구 기준 월 5만7천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은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꾸러미세트(A·B형)를 분류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해준다.

꾸러미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기류(삼겹살, 한우 국거리) 및 쌈채류(상추, 깻잎 등)로 구성됐다.

가구원 수 및 지원금액에 따라 각 품목의 용량에 차등을 두고 꾸러미를 배송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8월분 충전금액 전액 사용 후 8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대행기관은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최근 농식품바우처 지역협의회를 통해 결정됐다.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김미정 과장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취약계층들에게 우수한 농식품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군산시,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시범 운영

수혜자 대상 8월 23일까지 신청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수혜자 중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시범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꾸러미세트(A,B형)

를 구성하여 대상자에게 배송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군산시는 올 4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보충 지원을 위해 월 4만원 (1인가구 기준), 월 5만 7천원 (2인가구 기준)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바우처 카드를 제

공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희망자는 8월분 충전금액 전액 사용 후 8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꾸러미 배송 신청 후 사용하던 바우처 카드를 반납하면 된다.

/군산=박수현 기자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집앞까지”

군산시 배송서비스 시범운영
거동 불편한 사업 수혜자 대상
새달 23일까지 지원신청 접수

군산시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수혜자 가운데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시범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꾸러미세트(A,B형)를 대상자에게 배송해주는 것이다.

30일 군산시는 올 4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보충 지원을 위해 월 4만원 (1인가구 기준), 월 5만 7천원 (2인가구 기준)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수혜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등 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꾸러미 배송 시범운영을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

꾸러미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기류(삼겹살, 한우 국거리) 및 쌈



군산시가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채류(상추, 깻잎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원 수 및 지원금액에 따라 각 품목의 용량에 차등을 두어 꾸러미를 배송할 예정이다.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희망자는 8월분 충전금액 전액 사용 후 8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꾸러미 배송 신청 후 사용하던 바우처 카드를 반납하면 된다. 군산시는 8월 중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배송 대행기관은 (재)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지난 7월 농식품바우처 지역협의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9월 첫째주에 확정 대상자에게 일괄 배송된다. 군산=이재봉기자

군산시,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시범 운영... 내달 23일까지 신청

군산시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수혜자 중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시범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꾸러미세트(A,B형)를 구성해 대상자에게 배송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꾸러미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기류와 쌈채류로 구성돼 있으며, 가구원 수 및 지원금액에 따라 각 품목의 용량에 차등을 두어 꾸러미를 배송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8월분 충전금액 전액 사용 후 8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꾸러미 배송 신청 후 사용하던 바우처 카드를 반납하면 된다.

배송 대행기관은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서 9월 첫째 주에 확정 대상자에게 일괄 배송된다.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은 "바우처 카드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수혜자까지 고려해 사업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군산시,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시범 운영

배송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달 23일까지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수혜자 중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시범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꾸러미 세트(A, B형)를 구성하여 대상자에게 배송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군산시는 올 4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보충 지원을 위해 월 4만원(1인가구 기준), 월 5만7,000원(2인가구 기준)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수혜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등 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꾸러미 배송 시범운영을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

꾸러미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기류(삼겹살, 한우 국거리) 및 쌈채류(상추, 깻잎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원 수 및 지원금액에 따라 각 품목의 용량에 차등을 두어 꾸러미를 배송할 예정이다.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희망자는

8월분 충전금액 전액 사용 후 8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꾸러미 배송 신청 후 사용하던 바우처 카드를 반납하면 된다.

군산시는 8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는 방침이다.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대행기관은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배송하는 것으로 지난 7월 농식품바우처 지역협의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9월 첫째주에 확정 대상자에게 일괄 배송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시범 운영

군산시가 오는 9월부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수혜자 중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을 시범 운영한다.

이 사업은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영양보충 식품을 꾸러미세트 A,B형으로 꾸러 대상자들에 편리한 배송에 목적을 뒀다.

시는 올 4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보충 지원을 위해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 2인 기준에 월 5만 7천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대상자 중 거동 불편으로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등 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시범운영이다.

꾸러미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기류인 삼겹살과 한우 국거리와 쌈채류의 상추와 깻잎 등으로 가구원 수와 지원금액에 따라 각 품목의 용량에 맞춰 꾸러미를 배송할 예정이다.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희망자는 8월분 충전금액 전액 사용 후 8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꾸러미 배송 신청 후 사용하던 바우처 카드를 반납하면 된다. 군산시는 8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백용규 기자

군산시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시범운영 실시

군산시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수혜자 가운데 거동 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꾸러미세트(A·B형)를 구성해 대상자에게 배송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보충 지원을 위해 1인 가구 월 4만 원, 2인 가구 월 5만7천 원 등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수혜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해 로컬푸드 직매장 등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꾸러미 배송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것이다.

꾸러미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고기류(삼겹살, 한우 국거리) 및 쌈채류(상추, 깻잎 등)로 구성돼 있다. 시는 가구원 수 및 지원 금액에 따라 각 품목의 용량에 차등을 두어 꾸러미를 배송할 예정이다. 배송 희망자는 8월분 충전 금액 전액 사용 후 다음 달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꾸러미 배송 신청 후 사용하던 바우처 카드를 반납하면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군산시,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시범 운영

군산시가 오는 9월부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수혜자 중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을 시범 운영한다.

이 사업은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영양보충 식품을 꾸러미세트 A,B형으로 꾸러 대상자들에 편리한 배송에 목적을 뒀다.

시는 올 4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보충 지원을 위해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 2인 기준에 월 5만 7천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대상자 중 거동 불편으로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등 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시범운영이다.

꾸러미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기류인 삼겹살과 한우 국거리와 쌈채류의 상추와 깻잎 등으로 가구원 수와 지원금액에 따라 각 품목의 용량에 맞춰 꾸러미를 배송할 예정이다.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 희망자는 8월분 충전금액 전액 사용 후 8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꾸러미 배송 신청 후 사용하던 바우처 카드를 반납하면 된다. 군산시는 8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백용규 기자